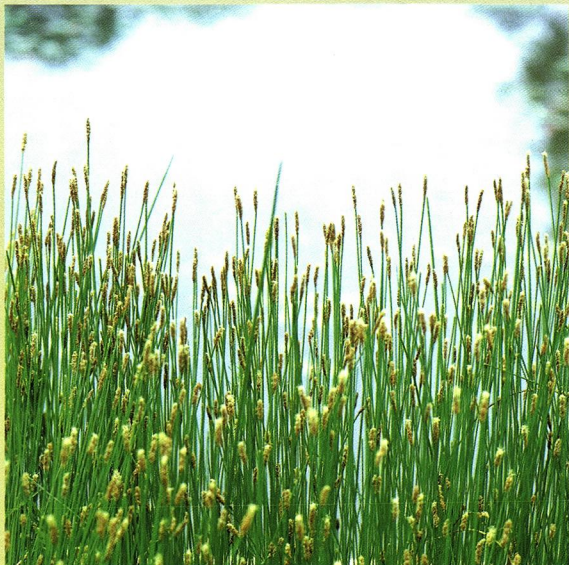


결혼의 약속

What is the Promise of Marriage?



한국 오늘의 양식사

결혼의 약속

What is the promise of Marriage?

한국 오늘의 양식사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4
희미해지는 약속	7
새로워진 비전	11
좋은 결혼의 4 단계	15
기대 / 17	
서약 / 27	
환멸 / 35	
만족 / 43	
사랑의 행동	55
결혼의 상징	59

결혼이 주는 약속



시간이 갈수록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이다. 서양에서는 둘 중 하나가 이혼으로 끝난다. 한국도 지난 몇 년 동안 이혼의 수가 부쩍 증가하고 있어 경종이 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기대감 속에 결혼하기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 생활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 보면 결혼 안 해서 불행한 사람들보다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 그렇게 불행한 것만은 또 아니다. 사실상 결혼이 무엇이며 결혼 생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단계가 무엇이며 기대해야 할 것과 기대하지 않아야 할 것, 결혼 생활에서 나의 책임과 배우자의 책임을 서로 잘 이해하고 맞추어 가기만 한다면, 또 어떤 것들이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적들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간의 성장을 추구해 간다면 결혼 생활은 시

간과 함께 더 영글어 가고 결혼의 본래 디자인을 찾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결혼 생활의 만족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찾으면서도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될 준비가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 행복의 원천은 배우자라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 분에게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며 그 분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결혼 생활은 성장을 거듭하게 되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활보다 더 보람 있는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 작은 책자가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준다. 모두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2000년 12월
김 상 복 목사

결혼의 약속

평생 동안 지키는 결혼 서약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꿈꾸며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누렸던 데이트,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애정을 나누는 즐거움을 결혼 후 실망과 환멸 속에 영원히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을 한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이 세대에서 결혼은 아직도 모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비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대와 동기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RBC의 데이비드 에그너 목사님은 결점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라도 성경에 담긴 지혜를 통해 결혼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복돋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

희미해지는 약속

밥은 창고로 뛰어 들어가 그의 작업대에서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 들더니 구석에 쌓여 있는 잡동사니 더미 위로 휙 집어 던졌습니다. 그와 폐기는 방금 또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싸움 때문에 골치가 아팠고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는 그의 작은 트럭을 타고 집을 나가 버릴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열네 살된 에이미와 열여섯 살인 마시, 두 딸이 생각났습니다.

밥은 때로는 일주일에 60시간씩이나 열심히 일했습니

다. 그가 기르는 4마리의 순종 말들을 위한 헛간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가 지었습니다. 그는 폐기와 그의 딸들에게 편안함과 어려움 없는 생활을 하도록 해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폐기는 밥이 노력하는 것들에 관심이 적었고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좀 해 보려 해도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자신의 감정을 오래 붙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감정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딸들도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밥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거의 감사하지 않았던 일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덧 에이미와 마시도 아내 폐기만큼이나 함께 생활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린 딸들은 요구가 많아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10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밥은 자신의 감정을 오래 붙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뤄 두었습니다. 그래야만 끝마쳐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감정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혼이란 결국 외로움, 분노, 좌절, 실망만을 남기는 것인가? 나는 너무나 공허해.”

샌디와 데이브는 결혼한 지 10년이 안된 부부인데 이제 샌디는 지쳐 버렸습니다. 데이브는 이 일 저 일로 직업을 바꿔왔고, 그가 하는 일에 만족해 하는 사람을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데이브는 일찍 가정을 갖기를 원해 왔는데 지금 샌디가 3번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일로 감정이 산산이 흩트러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더 갖기를 원했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부는 아직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샌디는 댁에 걸린 것 같은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이 이렇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 비싼 집과 차를 구입한 후부터 데이브는 자신을 위해 원하는 물건들을 너무나 쉽게 사들였습니다. 샌디는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돈을 벌면 벌수록 데이브는 쓰기만 했습니다. 그는 거의 잔디도 깎지 않았으며 빨래 건조기는 고장나 있었고 지하실 창문은 여전히 깨진 채로 있었습

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다소 도와주긴 하지만 샌디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 외의 것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매우 싫었습니다. 만일 데이브가 정상적인 직업을 찾겠다는 약속만 지키고 재정적인 책임을 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아주 진지하게 해 온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아기를 임신하였습니다. 샌디는 닳에 걸린 것 같은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에서 데이브와 서로 서약을 할 때에 그녀는 결혼 생활이 이렇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

새로워진 비전

밥과 샌디는 분노와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대해 왔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은 그들이 꿈꾸던 것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행복의 약속, 서로에 대한 보호, 애정, 배려 같은 것들은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결혼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동거하는 대신 결혼을 선택했다면 이혼율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젊은 성인들의 50%는 결혼이 파멸에 이르는 동안의 슬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혼의 파멸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미친 영향을 보아 오면서 그와 같은 일이 자기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혼율에 대한 통계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리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더 늘어갈지라도 결혼이란 '하늘나라에서 만든 것'이며 여전히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풍요로움을 얻는 곳입니다.

네, 모든 가치있는 것들이 그러하듯 결혼은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네, 우리는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로부터 서로 얻는 것들은 희생으로 잃어버리는 것들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입니다.

네, 지금 당장은 서로에게 잘 맞지 않는 것들이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따르기만 하면 놀랍게도 그 맞지 않

는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변하게 됩니다.

네, 결혼 생활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아주 심한 외로움이나 불만족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사랑의 삼각관계', '직장 내 이성 관계', 그리고 '안전한 섹스' 같은 것들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혼외 정사를 즐겼던 그 때가 있었기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고통과 분노로 더 파괴되기 전에 불행한 결혼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노에 가득차 이혼을 하는 것은 사랑 없는 결혼 생활만큼이나 비참하다는 것을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데이트에 쏟았던 열정만큼 결혼 생활에도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단점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끼며 감사로 가득찬 부부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서로의 단점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이겨내는 것을 배워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처럼 성숙한 부부들로부터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느라 빠듯해진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과 다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와 데이트할 방법을 찾으려 하는 남편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어루만져 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포용하는 부부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3

좋은 결혼의 4 단계

“결혼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은 결혼에 대한 좋은 질문이며 이유가 있는 질문입니다. 과연 결혼의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 한 여고생에게 그것은 그녀의 결혼식 날, 하얀 웨딩 드레스, 4명의 아름다운 들러리, 촛불, 꽃, 그리고 친구들로 가득찬 피로연을 의미할 것입니다.
- 신혼 부부들에게 그것은 함께 한 맹세들, 애정, 우

정, 그리고 모험을 말합니다.

- 결혼한 지 15년된 부부에게 그것은 자녀, 친구와 같은 배우자, 그리고 집을 의미합니다.
- 35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그것은 손자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노인이 된다는 신호들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몸 동작이 느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약속까지도 믿는 믿음을 시험해 보는 장이 됩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달라지고 꿈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결혼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은 또한 훌륭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나타나는 실망스러운 일들과 예견 가능한 인생의 변화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결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책에서 생각해 보게 될 1)기대 2)서약 3)환멸 4)만족의 단계를 통하여 우리의 성숙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결혼에 관해 하신 말씀에만 한정하여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믿음과 품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본적인 말씀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말씀들을 결혼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대

“결혼에서 나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상은 높고 나의 꿈은 찬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결혼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기대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그런 다음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 사회에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결혼 관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결혼은 나의 욕구들을 충족시킬 것이다.

- 애정과 성에 대한 욕구
- 동지애에 대한 욕구
- 가족에 대한 욕구
- 대화에 대한 욕구
- 재정안정에 대한 욕구
-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
- 집을 떠나고 싶은 욕구

이런 기대들은 상당히 합리적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방법과 동기가 근시안적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며 결혼을 합니다. 계모의 박대나 자기 아버지의 노여움과 냉담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딸이 그저 집을 떠나고 싶어서 결혼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들이 그가 찾는 개인적인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수치스런 이혼 법정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녀는 (그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하며 끝을 내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가 변화될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 결혼은 그/그녀를 변화 시킬 것이다.

자신들의 배우자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미리 정해 놓은 희망 사항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 직전에 그 내용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밝힐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곧 분명해집니다. 신학교 학생인 존은 그의 기대에 꼭 맞는 이상적인 목회자의 아내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내조자가 되어 모든 면에서 그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고, 여자 성도들의 모임에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교회 옆의 목사관에서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있고, 빠듯한 예산에도 절약하여 살 수 있으며, 2명의 자녀를 그것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계획한 대로 낳고, 그리고 늘 낙천적이고 행복한 여성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 생활에 곧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내 베키는 때때로 감상에 젖어 슬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전 한 닢 쓸 때마다 그에게 말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그저 약간의 돈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첫번째 아기는 계획대로 태어나지 않았고 게다가 종종

아팠습니다. 존이 자기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고자 베키를 압박할수록 그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존이 아무리 압박을 해 봐도 그녀는 그의 이상을 맞춰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되는 시도를 합니다.

3. 결혼은 가만히 놔둘수록 자유로울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또 다른 더욱 묘한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들은 배우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자유를 관대하게 허용합니다. 그 대신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보다 더 많은 자유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배우자가 거의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서로 참견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무 것도 안 물어 볼 테니 당신도 나에게 아무 것도 묻지 않길 바라.”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대

성경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

는 것과 다른 면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브를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일 이상의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대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결혼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줄 수 있게 한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결혼을 한 사람들은 교제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들까지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고린도전서 7:28-35).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서약을 함으로써 실제로 서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였습니다(고린도전서 7:33-34).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고린도전서 7:28) 어떤 의미에서 결혼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책임지고 부양해야 할 아내와 가정과 가족이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세계 곳곳을 찾아 다니는 대사로서 그가 수행했던 많은 일들 중 상당 부분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결혼이 주는 모든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 배우자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선택한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의지함을 줄이지 않고 우리의 결혼 서약을 지킬 수 있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두번째 기대를 가져 볼 만합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변화되길 기대하면서 결혼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2. 결혼은 우리를 더 좋게 변화시킬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평생의 동반자가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애정적 경제적 육체적 만족을 줄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짝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 온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은 우리 배우자가 지니고 있는 장점들이 계발되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심령을 가진 사람

이 되게 해 주시는지를 말해 줍니다. 결혼은 그 자체의 속성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요구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며 “좋은 때나 나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에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의 관심사보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성경적 원리에 맞습니다(빌립보서 2:1-4). 그러나 결혼의 친밀함과 책임감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 나가도록 도와주는 이상적인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에 서약과 위험과 자기를 희생하는 투자가 필요한 것은 결혼이 지닌 매우 자연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만큼의 하나됨, 사랑, 충성 그리고 축복을 얻고자 하는 부부들은 개인적으로 크게 성숙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언제 어떻게 포기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상대방의 요구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들을 자신의 욕구보다 더 우선시할 때 누리는 마음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은 다른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며 우리의 성장을 요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울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는 창문이 될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님께 의지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결혼의 뜻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친구와 자녀, 그리고 친척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주시는 신실한 사랑, 정직, 도덕적 용기, 참된 겸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인내, 부드러운 이해심 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종종 결혼을 얼룩지게 하는 교묘한 혹은 두렵기까지 한 맹종 대신에 상대방에 대한 순수한 배려와 우정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초점을 우리 배우자의 결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동기와 행동에 맞추어야만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러한 사랑은 “내가 당신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니 당신도 내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말아 줘” 라는 주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혼은 가장 친밀하고 상호 의존하는 방법 안에 있습니다.

3. 결혼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성경은 결혼을 함으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하나

됨을 유지해 주는 한 요소는 죽는 날까지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서로 돌봐주기로 한 서약입니다.

이런 사랑의 서약을 한 우리는 항상 배우자가 지니는 가장 좋은 점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결점과 죄들(마태복음 7:1-5)을 먼저 회개한 이후에 비로소 상대방의 중대한 결점을 고칠 수 있는 시기 적절한 방법을 신중하게 찾아야 합니다. 신실한 친구라면 때로 뼈아픈 충고의 말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잠언 27:6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에게 끊임없는 잔소리나 같은 말을 장황하게 되풀이하여 귀찮게 한다거나 거칠게 비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는 싸움이나 말다툼을 일으키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느니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21: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부는 사랑과 함께 배우자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들을 배우자에게서 이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은 배우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받아 주거나 파괴적인 중독증에 빠지는 것을 거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예에서 보여 주시는 것처럼 사랑은 환경의 필요에 따라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과 같은 그의 뜻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결혼' 관계를 잘 깨달아 참고 견디는 사랑을 이루어 나가길 바라십니다(고린도후서 11:2, 에베소서 5:22-33).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로 설명된 남편들과 아내들의 분명한 역할을 이해하도록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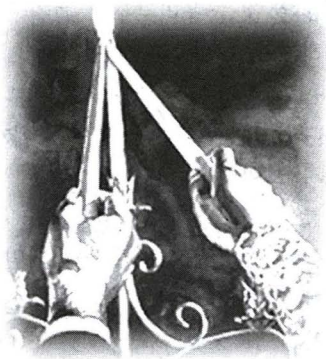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30-32)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들은 신혼이나 재결합한 결혼에 큰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여 주며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기대들이 결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혼인 서약의 기초를 이룹니다.

✧ 서약

일가 친지들과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고 오르간이 부드럽게 연주되고 있습니다. 들러리들이 서있습니다. 축가가 이제 막 끝나고 예식장이 고요해지면서 목사님이 주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손을 맞잡으시고 내 말을 따라 하십시오. 나, 제임스는 당신, 수잔을 아내로 맞아...”



엄숙한 서약을 함으로써 기대가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소중히 여길 것”을 하나님, 가족,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서약을 하고 결혼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구체화시키는 서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혼 예식을 하고 나면 우리의 예상과는 매우 다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곧, 예기치 못한 우여곡

절들을 겪으면서 결혼 생활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욱 포용력이 있게 되며 또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로부터 끄집어 내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난도 겪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며 때로는 관계가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는 결혼식 때 서로에게 한 약속들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결혼식에서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 놓고 서로에게 한 약속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결혼 생활 중에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생의 서약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예. 맹세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함께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맹세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

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짜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4-6).

누군가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혼은 어떻습니까?
이혼은 우리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을 경우 피할 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
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
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
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
복음 19:8-9).

결혼 서약은 마음과 뜻을 다 하여 일생 동안 지킬 약
속에 대한 표현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
입니다. 결혼 서약을 가장 풍요롭게 실현하기 위한 방
법은 그 기본 개념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말로 서약을 할 때 그것은 평생을 의
미합니다. 이 서약은 나중에 깨뜨리려고 한 것이 아닙
니다(전도서 5:4).

“제약이 너무나 많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

습니다. 결혼 서약은 많은 제약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서약은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과 진지한 양보를 통해 사랑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자유를 줍니다. 이 서약은 남편과 아내가 평생의 약속인 ‘사랑의 서약’을 서로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 사랑의 선물은 그들로 하여금 육체적 질병과 서로 다른 취미, 일에 대한 압박감, 십대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서로간의 어려운 스트레스 등을 모두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약속은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난 약속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약속을 지키겠어.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평생 이 서약을 지킬거야.”

동일성의 공유

결혼 서약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남자도 여자도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단일체, 새로운 다양성,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두 사람은 물론 별개의 개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두 사람은 하나가 되는 신비를 나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28-32).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처럼,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다양성을 지닌 채 결혼식장에 입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을 한 후 동일성을 공유한 한 몸이 되어 각자 걸어 들어왔던 결혼식장의 중앙 통로를 통해 나아갑니다. 서로 다른 배경, 다른 가족, 다른 교육, 다른 마음의 상처,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 서약으로 이들은

- 남편이 중동 지방에서 일하게 되어 아내와 헤어져 있어야만 할 때
- 아내가 임신 후 첫 3개월 내내 힘들어할 때
- 아내는 승진하고 반면에 남편은 하던 일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 남편이 병원에서 “죄송합니다. 치료 불가능한 암에 걸렸습니다”라는 말을 듣거나 아내가 다발성 경화

증에 걸린 때

- 남편이 그의 노부모를 부양하느라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할 때
 - 그들의 막내딸이 교회에서 결혼 서약을 할 때
- 그 어느 때에도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이들 두 사람은 새로운 동일함으로 하나가 되어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기로 약속했습니다.

배타적인 관계

두 사람의 혼인 서약의 관계는 총체적 신뢰를 요구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진실되며 그리고 서로만의 배타적인 애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에게 진실해야 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예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

라 (잠언 6:27-29).

현대 사회에 퍼진 그릇된 풍조에도 불구하고 결혼 서약은 오직 한 사람과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테 교회의 나이든 부인들로 하여금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결하며
(디도서 2:4-5).

시내산에서 주신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출애굽기 20:14)입니다. 예수님도 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9:18).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죄를 나열하면서 간음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갈라디아서 5:19).

**우리가 맺은 결혼 서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둘 중 하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실 때까지 깨어지지 않게 보존되어
야 합니다.**

“당신에게 신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말에 대해 마이클 메이슨은 「결혼의 신비」라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의 맹세로 서로를 사랑하

는 방법입니다.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중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선택한 평생의 반려자이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지 않고 어디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맹세를 하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진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결혼에 대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맹세를 따르는 부부들은 다음과 같은 결혼의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의 사랑을 배우자에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 아주 작은 문제에조차도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 바람 피우는 것은 시작하지도, 흥미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거짓된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외부로부터 그 결혼 서약을 무시하게 만드는 유혹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혼의 약속은 두 사람 중 하나가 하늘나라로 불리어 올라갈 때까지 유효한 혼인 서약과 우리가 한 굳은 맹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깊은 의지가 있고, 우리가 한 맹세를 계속 지킬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결혼 생활에 있어

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환멸

환멸은 빠르게는 신선 여행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의심은 각자의 생각이나 감정의 이면에 이미 드리워져 왔던 그림자입니다. 그녀의 신성했던 분위기에 작은 얼룩이, 남편의 빛나는 갑옷에는 옅은 변색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무시하려 애써도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생각했던 그런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기분을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과 상의도 없이 혼자서 계획을 세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도 없이 빗보증을 서는가 하면, 아내는 서로간의 논쟁을 결말없이 끝내 버리곤 합니다.

한편 아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혼란스럽

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결점에 온통 신경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 결정할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무엇이든지 돈을 쓸 수 있었던 독신 시절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불행하고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크리스천 상담가 노만 라이트는 그의 예비 부부를 위한 상담책자 「평생 사랑을 약속하기 전에」에서 결혼한 사람은 누구나 환멸의 단계를 통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 부부는 자신들이 결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 사이의 틈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이런 일은 신혼 여행 중에 혹은 그들의 새 보금자리에 가구 놓을 자리를 정하는 중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마다 극복은 하지만 그래도 환멸은 계속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임신한 첫 한달 동안, 어린 아이들을 기르면서, 결혼 생활로 사회 경력이 바뀌면서, 자녀가 십대가 되었을 때, 나이가 들어 40대말,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좋은 건강을 주셔서 오래 살게 되면 70대, 80대에 이르는 동안에도 환멸은 계속 생깁니다.

환멸은 끝까지 두 부부를 따라 다닙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부부가 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찾는 것으

로 채워지지 않습니다(빌립보서 4:11-13).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하며 때론 실패도 합니다(로마서 7:14-25). 결혼처럼 인간의 모든 결함을 잘 드러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결혼의 친밀함

결혼을 하여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면 속 마음을 다 드러내 놓기 때문에 깊은 애정과 부부로서의 동일성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오히려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정해져서 직업적으로 서로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사업 관계와는 달리 결혼은 하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두 남녀는 곧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성의 쾌락, 임신과 출산의 단계, 새 집을 살 때의 흥분, 남편의 승진이나 아내의 취직에 대한 좋은 소식 등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부모로서의 어려움, 십대의 자녀 문제, 가정 경제의 위기 등도 함께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서로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게 될 정도로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함은 다른 어두운 면을 갖고 있습

니다. 그들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게 됩니다. 남편의 부주의함과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아내를 절망하게 합니다. 남편의 결정을 믿지 못하고 알고고도 하지 않는 아내의 행동에 남편은 화가 납니다. 아내는 어떤 말을 하면 남편을 화나게 만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그의 충동적인 소비 습관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결혼의 친밀성은 우리의 진정한 속 마음을 보여줍니다.

결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 인내의 부족, 무신경함, 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모욕하고 추궁하고 상처를 줍니다. 결혼의 친밀함이 오히려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이 친밀함이 배우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드러냅니다. 자신에게 드러난 모습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 확신, 만족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배우자가 채워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는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서로 신뢰했었는데 결혼을 통해 배우자의 잘못뿐 아니라 뜻밖에도 우리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잘못된 동기

모든 남자와 여자는 몇 가지 건전치 못한 이유를 갖고 결혼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정을 얻으려고, 사랑하고 보살피 줄 누군가를 갖고 싶어서, 평생 지속되는 관계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와 같은 많은 올바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와 다른 성격 때문에 상대방에 이끌리었던 것도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충동적인 성향이 있음을 아는 한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 배운 적이 전혀 없습니다. 충동적인 쇼핑 습관 때문에 그는 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변함없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의 자유분방하고 충동적인 삶의 방식을 그녀가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두 사람은 돈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안돼요'라고 말하는 역할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혼자라는 느낌을 느꼈고 짐을 나누어 져야 하는 부담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기 위해 결혼한 것이지 그의 엄마가 되어 주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밖에 잘못된 결혼의 동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나쁜 습관을 이기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 나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 억압적인 부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 출세에 필요해서
-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 불건전한 성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저의는 오래가지 않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에 다음과 같은 것들 때문에 환멸이 생깁니다.

결혼에서 볼 수 있는 파괴적 행동

다음과 같은 것들은 아주 나쁘고 파괴적인 형태입니다.

1. 잔소리 같은 비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잠언 21:19).” 이것은 비판적인 남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등 의식 때문에 혹은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야 할 필요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알콜 중독자들은 대개 술을 마시지 않는 배우자들을 극단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치셨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1-5). 자신의 잘못을 감추어 보려고 남을 계속 비판한다면 그것은 환멸을 일으키게 하는 위험한 요인이 됩니다.

2. 분노

억제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문제로 자주 분노를 터트리면 결혼의 안정을 잃습니다. 억제되지 않는 분노는 어떤 관계에서도 위험합니다. 잠언 22:24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결혼 서약을 나눈 후 분노를 갑자기 보이면 배우자는 환멸과 함정에 빠진 느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 자기 중심적

배우자가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가 됩니다(빌립보서 2:1-4). 결혼을 하면 누군가 자기를 돌보아 줄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환멸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4. 짜증나게 하는 태도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고린도전서 13:5)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나 단둘이 있을 때나 자기만 알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 무신경이 드러나 보일 때 배우자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무력함,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무시당한다는 느낌,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배우자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우리의 진짜 적들로부터 피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5. 부정직한 감정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절망스럽거나 실망스러운 느낌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나름대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더 큰 상처나 충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자기 방어적 자세는 진실성과 사랑의 결핍을 가져오고 둘 사이의 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차갑게 만들어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느낌을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환멸은 결혼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있지도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환멸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 만족

그렇다면 결혼 생활에서 이 풀기 힘든 환멸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멸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함께 노력해서 해결하겠다고 두 남녀가 작정을 하고 나서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에 포용과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어 일생 동안 결혼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은 좌절과 두려움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이미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정지되어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침실로 들어가 문을 꽂고 몇 시간 동안 그대로 있기도 해 보았으나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환멸은 우리가 늘 갈망해 왔던 바로 그 사랑과 보호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이 문턱을 넘어 사랑과 보호의 약속이 실현되는 입구로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우리의 실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실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단계는 그리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분

께 우리의 결혼이 복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놀랄 일이라도 되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알콜 중독자 아버지와 자살한 어머니를 준 바로 그분이 아닌가요? 이제 와서 내가 힘든 결혼 생활에 허덕일 때 내게 와서 나를 돕지 않았다고 놀랄 일인가요? 하나님은 내 기도 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지도 않았고 내 안에서 나를 갹아먹는 공허함도 없애 주지 않았어요.”

크리스천 상담가 댄 알렌더는 그의 책 「용기있는 사랑」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은 성폭행을 당한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폭행을 막아 주지 않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족으면 족지 나는 하나님에게 빛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분명하고 비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같등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에 응답 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최고의 사랑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힘든 싸움 가운데서 그녀는 단지 분노에서 나오는 용기를 갖고 말을 던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용기있는 사랑」

결혼 생활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약속을 깨뜨린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그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로 갈등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할 때에 우리는 삶의 만족을 얻게 되기까지 하나님께 먼저 실망했던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던 욥이라는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으며 그 다음에는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 했다는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혔던 요셉이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제자의 밀고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둔 그 날 저녁 그에게 곧 다가올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성경은 환멸이 성취의 기쁨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욥은 장수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고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욥기 42:1-6). 요셉은 그에게 해를 입힌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을 보았습니다(창세기 50:20).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프고 두려운 경험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바뀌는 것을 대대로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라고 하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예수님만큼 살면서뿐 아니라 죽으면서까지 배반과 고독과 거부와 모욕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같이 우리 죄 값을 대신 치루면서도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공정치 못한 처우를 받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욥과 요셉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선하심과 권능과 신실하심을 적절한 때에 보여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사셨고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결혼을 위해서도 이와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완전한 성취감이 나 보호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함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유롭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본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결혼의 원천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에 환멸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서적 상담가 래리 크랩은 「남자와 여자」라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라든지 더 행복하거나 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상처받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덜어 보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노력들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합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이 편안해질 수 있는가 아닌가에 관하여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자기 맘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격려해 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이 배우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남편은 아내의 반응이나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중을 가릴 줄 아는 감각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에베소서 5:25).

예수님과의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아내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남편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과 보호의 진정한 원천을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곧, 바른 동기에서 비롯된 순종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주되심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내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에베소서 5:22-24).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는 서로 의존하는 사

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함이 사랑으로 서로 의존하는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힘과 만족함을 찾으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부부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건전하지 못한 독립적 생활이나 상대를 지배하는 위치를 주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특별히 은사를 받은 독특한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상대방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을 빼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그들이 “맹세합니다”라고 한 결혼 서약은 평생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주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독특한 배우자에게 어떻게 진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와 조력자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

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18).” 잠언31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은 진취적인 여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두 부부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훌륭한 사업 감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은사들을 질투하거나 그 은사들을 능력껏 사용하는 그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녀의 원래 모습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한 여자로서 아내를 사랑하였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 사업의 성공뿐 아니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녀가 남편을 존중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남자로서 그의 은사를 존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고 써 있지 않습니다.

이혼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 세대에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는 이런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찾으며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는 아내들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

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에베소서 5:22-23)' 고 하신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성적인
면에도 적용됩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 침실에
서의 애정에 있어서 서로의 기대하는 바를 공유하고 보
호하고 즐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들의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 지속적인 즐거움과
활기찬 새로움을 주도록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었습니
다. 지혜로운 잠언의 저자는 남편들에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
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
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겨
워 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 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 노
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 5:15-19).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그들은 서로에게서
성적 만족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고린도전서 7:3-4).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한동안 금욕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고 그 기간은 짧아야 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7:5).

이런 공통의 즐거움을 위해 부부는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자신을 서로에게 맡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기쁨이 사단에게로 가고 맙니다.

4

사랑의 행동

사랑은 동기뿐 아니라 행동을 뜻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랑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서의 놀라운 교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요한계시록 19장).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에베소서 5:25). 그는 경륜이 높은 노부인들이 젊은 여인들을 가르쳐 그들의 남편을 사랑하게 하라고 권면했

습니다(디도서 2:4). 행동하는 사랑은 결혼식 때에 한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결혼 생활에 다시 빛을 비춰 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납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은 결혼에 가장 잘 적용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사랑이 어떤 것들을 행하는지 말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결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고린도전서 13:4-8).

이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한번 더 읽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아내나 혹은 남편에게 위와 같이 해 왔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이 진정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깎아 내리는 일 없이 20년, 40년,

혹은 50년 동안 결혼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환멸과 이혼에까지 이르게 하는 서로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삶을 통해 배워 왔습니다. 이들은 단지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 결혼은 성취해 나가며 가치있고 모험적이며 사랑하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하며 그들의 차이점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 올 수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막다른 궁지에 빠져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자는 '유난스럽게 깔끔을 떠는 사람'이고 남자는 깔끔치 못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두 사람의 이 차이점이 그들을 갈라 놓기 시작합니다. 곧, 여자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남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은 행동을 합니다. 사랑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청하면서 문제 해결에 이르게 하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상대방의 눈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려는 단호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가는지를 생각하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아내가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의자 등받이에 셔츠를 벗어 두더라도 그것이 큰 범죄 행위이거나 도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불 같은 분노나 감정을 유린하는 것과 같은 좀 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보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원리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요한일서 4:7-8)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구주 예수님이 도와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부들에게 결혼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5

결혼의 상징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의 신부라고 부르셨고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성과 희생적 사랑,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신뢰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결혼'의 약속은 예수님이 그의 신부에게 다시 오실 때 이루어 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

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를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오실 때에 뒤에 남겨질 것입니까?

하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이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로마서 3:23; 에베소서 2:8-9),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과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신부로 해야 할 역할은 다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관계가 주는 약속을 경험하고 하늘의 약속을 바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오늘의 양식사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전화변경 받는곳

전 화 : (031) 780-9565~7

F A X : (031)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hallelujah.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816

■ 선교헌금 안내

오늘의 양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권당 450원의 제작비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 주심으로써 문서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좌번호·예금주 : 「할렐루아선교원」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외환 : 026-13-33750-7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우체국 : 012773-0026681

■ 섬기는 분들

발행인/김상복 편집장/김승호 고문/최태의 위원장/고정식

총무/최부용·이덕진 상담/김영자 관리/이종규 출판/이덕진

기획/정호균 발송/이의호 홍보/차일환 회계/이향순

제작/소망사 : 733-4242 · 팩스 : 733-4243

신앙 성장 시리즈 16

결혼의 약속

인 쇄 / 2000. 12. 20.

발 행 / 2000. 12. 25.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1)780-9565~7

- 1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 2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 생활 안내
- 3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 4 **복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 5 **균형있는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 6 **왜 살아야 하나?**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 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 7 **행복한 결혼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 8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 9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 10 **걱정없이 살고 싶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 11 **다시 찾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활력을 회복하는 길
- 1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 원리
- 13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 하루 하루 성장하는 삶의 지침서
- 14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평생 드리는 귀중한 예배,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할 예배의 안내
- 15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신앙성장 시리즈」 구독신청 및 선교헌금안내

청원및 헌금자	성명 주소	전화															
	성명 주소	전화	(우편번호:)														
받는사람	출석교회	직분															
	시리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신청부수								,								

헌금입금은행: ()은행

■ 선교헌금 안내

『한국 오늘의 양식사』는 『신앙성장 시리즈』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제작비(권당 600원, 운송료 포함)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주시십시오. 문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구좌번호 <예금주: 할렐루야선교원>

외환: 026-13-33750-7 한빛: 132-05-108980 국민: 097-01-0199-703
 서울: 16301-1886909 우체국: 012773-0026681 제일: 107-10-109840
 동협: 001-01-214911 조흥: 308-01-137748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한국 오늘의 양식사』 우편번호: 463-816

전화(031)780-9565~7 FAX (031)780-9569

신앙 성장 시리즈 16

『결혼의 약속』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약속에 대한 기대, 서약, 환멸, 만족의 단계를 이해하고 좋은 결혼 생활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소책자는 결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문제점들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이 비전은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 실현될 것입니다.

- 회미해지는 약속
- 새로워지는 비전
- 좋은 결혼의 4단계—기대, 서약, 환멸, 만족
- 사랑의 행동
- 결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Radio Bible Class

이 책자는 미국의 R.B.C(Radio Bible Class)에서 발행한 “What is the Promise of Marriage?”를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번역 출판한 것입니다.